

# 신한라이프, 상반기 장사 잘했다 순이익 3453억 ‘우수 구간’ 근접

보험손익 줄고 투자손익 반등  
OCI 변동성·충당금 확대 부담  
K-ICS 199.6% 방어력 회복세  
하반기 자본·신용 관리 관건

신한라이프가 올 상반기 345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우수 구간’에 근접한 실적을 냈다. 그렇지만 기타포괄손익(OCI·장부평가 손익) 변동성, 보험서비스비용의 확대, 신용손실충당금(미래부실 대비금)의 증가와 같은 요소는 하반기 점검 과제로 남았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의 올 상반기 실적 핵심은 ‘보험손익 둔화’와 ‘투자손익 회복’ 흐름이다. 보험손익은 3755억원으로 전년 동기(4061억원) 대비 감소했다. 2분기 단일 분기 기준으로 1865억원으로 전년 동기(2058억원)보다 낮다.

투자손익은 909억원으로 전년(418억원) 대비 크게 개선됐다. 금리·배당·평가 이슈의 기저효과와 운용 효율화가 맞물리면서 상반기 전체 이익 방어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 상반기 순이익 3453억원을 나타냈다.

세부적으로 보면 보험수익(CSM 등 인식)은 안정적이었지만 보험서비스비용(1조699억원)이 전년 대비 1269억원 증가해 본업 수익성을 압박했다. 그사이 재보험 수익(670억원)이 늘고 재보험 서비스비용(736억원)도 확대되는 등 비용·효익이 동시에 반영됐다.

투자부문은 회복했지만 변동성은 남아 있다. 상반기 기준(별도) 파생상품 관련 이익은 3458억원, 손실은 1195억원으로 순이익 약 2264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신한라이프가 지난 상반기에 3400억원이 넘는 순이익을 달성했다. 서울 을지로 사옥.

/신한라이프

동기 순손실 3340억원에서 반등했다. 반면 외환은 이익 782억원, 손실 3803억원으로 순손실 약 3021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순이익 3554억원 대비 방향성이 바뀌었다. 금리와 환율, 헤지 포지션에 따른 민감도가 확인된 만큼 하반기에도 파생 전략의 일관성 유지와 외화 노출(익스포지) 관리가 실적 변동성을 좌우할 전망이다.

자본·건전성은 ‘방어력 회복’과 ‘변동성 내재’로 요약된다. 지급여력비율(K-ICS)은 199.6%(경과조치 미적용)로 지난 3월 말 대비 10.32%포인트(p) 개선돼 방어력을 회복했다.

다만 상반기 기타포괄손익(OCI)은 연결 -6038억원, 별도 -5917억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 평가이익이 쌓였지만 현금흐름헤지(변동 방지 거래) 평가는 마이너스였고 보험부채 관련 순금융손익이 큰 폭의 마이너스로 반영돼 자본총계 변동성을 키웠다.

자본총계는 6조3978억원으로 이익잉여금 축적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수에 따라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 하반기에는 ▲ALM(자산·부채 관리) 정합성 ▲헤지 포지션 ▲조달 타이밍(후순위·배당)의 조율이 중요한 전망이다.

신용 지표 부분에서는 가중부실자산비율(NPA)이 0.18%로 전 분기·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절대 수준으로는 낮은 편을 기록했다. 해외부동산 수익증권 재분류와 가계대출 연체 증가를 변동 요인으로 꼽았다.

상반기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1182억원으로 전년 동기 587억원 대비 약 595억원 늘었다. 환입(616억 원)을 감안한 순전입도 약 566억원으로 전년 197억원보다 확대됐다. 신용손실충당금 증가로 하반기에는 대체투자 및 가계·기업대출 익스포저에 대한 보수적 모니터링과 충당금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된다.

신한라이프의 상반기 실적은 투자손익 회복에 힘입어 우상향했고 방어 지표도 무난했다. 하지만 보험서비스비용 증가로 본업의 수익성 탄력은 제한적이었고 OCI 중심의 자본 변동성, NPA의 미세 상승은 하반기 체크포인트다. 실적은 좋아졌고 체력은 견조하나, 자본·비용·신용의 3축을 긴 호흡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평가다.

신한라이프는 공시를 통해 “전년 동기 대비 금융상품 투자손익의 증가 등으로 법인세차감전 순이익과 반기 순이익이 증가했다”며 “해외부동산 투자수익증권의 자산건전성 재분류와 가계대출 연체 증가에 따른 추정손실 증가로 가중부실자산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수협, 1인당 영업익 1300% ↓

조합 89곳 중 흑자 유지 13곳 불과  
총 44곳은 1인당 영업익 적자 기록

올 상반기 공시를 낸 지역 수협 조합 중 절반가량이 직원 1인당 생산성에서 적자가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의 경우 1인당 영업이익 생산성이 반년 만에 1300% 이상 적자를 내면서, 역대급 경영 효율성 악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조합 영업이익을 직원 수로 나눈 값이다. 대표적인 상호금융조합의 경영 효율성 지표로 간주된다.

10일 메트로경제가 상반기 공시 자료를 낸 89개 수협 조합의 경영지표를 취합한 결과 지난해 말 대비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곳은 총 44곳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일부는 전년 대비 적자 폭을 줄였으나, 여전히 마이너스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적자는 면했어도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줄어든 조합까지 합치면, 모두 76곳에 달한다. 공시를 낸 조합 89개 중 흑자를 유지하면서 1인당 영업이익을 늘린 곳은 13곳에 불과하다.

문제는 적자 조합의 직원 1인당 생산성이 단순히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거문고수협조합의 경우 지난해 말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은 약 1396만원이었

다. 그러나 반년 만에 약 2억원 가량 줄어들면서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마이너스(-)1억786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대비 1379% 감소한 수치다.

제주어류양식수협 역시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반년 만에 4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말 약 3억 3649만원이었던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올해 상반기 8810만원으로, 반년 만에 약 2억 5000만원 감소했다.

통조림가공수협조합 역시 직원 1인당 영업이익이 3000만원대 흑자에서 1억원대 적자로 돌아섰다. 약 1억 3561만원 정도 줄어들면서 426%의 감소율을 보인 것이다.

반년 만에 개별 조합 직원 생산성이 억원 단위로 급감한 가운데, 수협의 순이익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수협은 올해 2분기 순손실 1392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냈다. 1586억원의 순손실을 낸 전년 동기에 비하면 적자 폭은 2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적자 기조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상호금융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들의 결손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부실을 정리하고 하다 보니 영업이익이 줄어서 생산성이 줄어 들었다”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스테이블코인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

美 지니어스법 통과로 논의 급물살  
전통 금융권도 전략 반영 불가피  
일본은 신중, UAE는 적극 ‘온도차’

해외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름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한국에서도 적합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권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가상자산업계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지위를 규정하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이후 가상자산과 전통적 금융의 연결이 불가피해져서다.

‘스테이블코인’은 화폐나 귀금속 등 가치가 일정한 자산에 가격이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발행 초기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제약이 많은 기존 화폐를 대체해 사용됐고, 최근에는 일본·미국·EU 등 주요국의 제도화 움직임에 힘입어 그 영역을 전통 금융까지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영역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 하원은 지난 7월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지위 및 발행 요건을 규율하는 ‘지

니어스법’을 통과시켰다. 지니어스법은 최종 검토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효력을 갖는다. 전체 스테이블코인 발행량의 98%가 미국 달러에 연동된 만큼, 지니어스법의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은 거스름수 없는 아젠다로 부상했다.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업비트 D컨퍼런스(UDC)’에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제도권 금융과 블록체인의 만남’이란 분석을 내놨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폴 벤시스 팩소스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성장 총괄은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이 통과된 이후, 전통적인 금융 시장 및 서비스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대대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면서 “법안 통과 이전에는 많은 금융기관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주저했지만 이제는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에 반영해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한 본질상 다른 나라에서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이고, 수용할 것인지 고려할 수밖에 없

다”라면서 “블록체인에는 국경이 없고, 이미 시작된 논의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강남구 슈피겐홀에서 개최된 ‘BTCON2025’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화두가 던져졌다. 이날 두 번째로 진행된 패널 토론의 주제는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 제정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으로 설정됐다.

패널로 토론에 참여한 니키 아리아싱헤 체인링크 랩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규제기관들도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대응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일본과 같은 보수적인 기관들은 관망세를 유지하며 조심스러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금융 허브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본격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규제기관들도 여럿 있지만, 이들조차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 이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에 제안한 ‘현대자동차그룹 연계 로봇틱스 라이프’.

/현대건설

## 현대건설, 압구정2 ‘로봇 친화단지’ 제시

단지설계부터 동선·시스템 최적화  
‘셔클’ 기반 무인셔틀로 이동성 높여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를 추진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 친화형 아파트’를 제안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른바 ‘로봇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은 단지 설계부터 로봇 운송을 통해 동선과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엘리베이터와 자동문, 통신망까지 로봇과 연동되도록 설계해 로봇이 단지 내 구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했다.

로봇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해 로봇 스스로 중간 이동과 문 개폐가 가능하다. 단지 밖 도로에서 지하주차장과 공동현관, 엘리베이터를 거쳐 세대 현관문까지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로봇틱

스랩 ▲현대로템 ▲현대위아 등 그룹사 역량을 총결집해 입주민의 이동과 편의, 안전, 전기차 충전 및 주차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 플랫폼이 적용된 로봇이 단지 전역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다.

단지 내부에는 현대차·기아의 ‘셔클’이 적용된 무인 셔틀이 운영된다. 셔클은 현대차그룹의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으로 실시간 승객 수요에 따라 노선과 운행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단지 내 이동 효율을 높이고 교통 약자에게 안전한 이동 수단을 제공한다.

현대건설관계자는 “압구정2구역은 이동과 편의, 안전, 전기차 충전 및 주차까지 아우르는 차별화된 로봇 솔루션이 적용된 최초의 도시”라며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며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적용된 미래 주거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원 기자 jiw13@